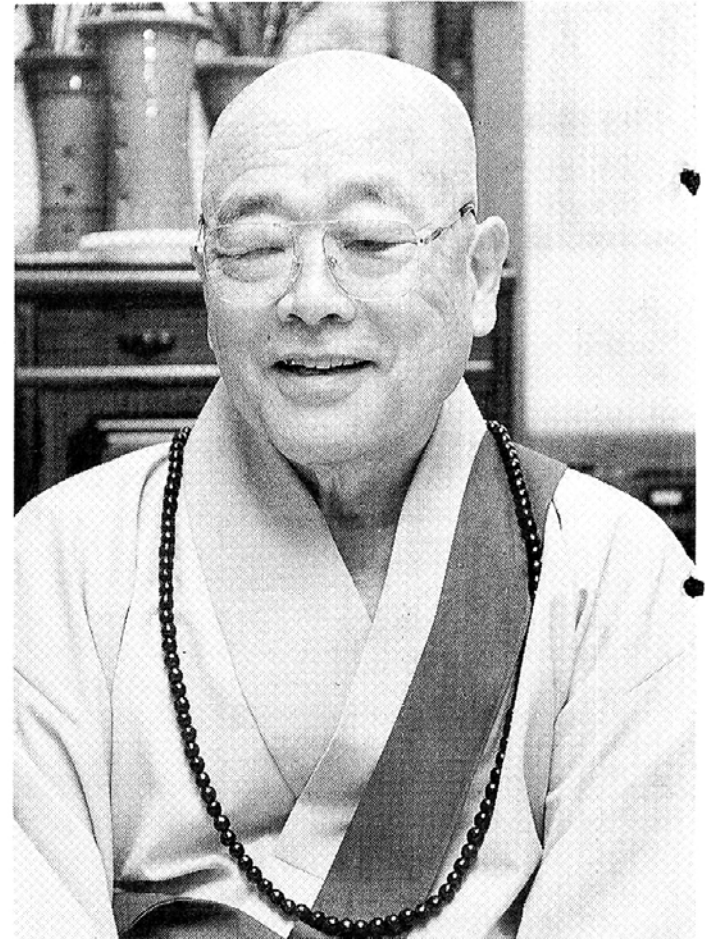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삶이 고통이라 말하지만

도우스님 (도선사 참회선원장)



- 1922년 문경 동로면 생
- 1934년 13세에 상주 남장사에서 임제종 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04년 문경 김용사에서 강원 대교과 졸업
- 1971~74년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역임
- 1974~75년 조계종 검찰원 원장 역임
- 1980~ 삼각산 도선사에 주석

계절은 늘 변하지만 지난해의 가을과 올해 맞는 가을이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한자라니까요. 내가 젊었을 때 가을저녁 참선정진을 하고 있으면 성철스님이 살포시 옆에 오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 조실스님이 조실방에 계셨는데 사자 한 마리가 그 앞에서 지기며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모두 물었다. 어떻게 하면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조실방에 들어갈 수 있겠나?” 하시고는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면 죽비를 내렸습니다. 항상 스님들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받아적어 가며 공부하던 그때 성철스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건져주는 가르침의 죽비였습니다.

나는 보통학교를 마치고 13세 때 절에 들어가 (초발심자경문)부터 배웠습니다. 상주 남장사에서 임제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지요.

김용사 강원에서 (원각경)을 보다가 중생이 본래 청정하다 하는데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려 고민하던 중에 (화엄경)을 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삼불금중생(心佛及衆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는 (화엄경)의 가르침에 의심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 차별 없이 모두 부처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청정하지 못하고 꾸처와 같지 않으니 결국은 마음을 깨달아야 그 경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참선하여 마음을 깨닫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는 김용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직지사 참불선원에서 ‘이뫼고’ 화두를 배워서 오나라나 ‘이뫼고’를 참구하며 그렇게 첫인생을 보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어떠한 부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를 알려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처의 마음자리를 활발하게 쓰지 못합니다. 처처에 걸리고 울고 불고 아단 법석을 피우며 초조하고 불안해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성이 탐진치 삼독에 둘러 싸여 있어서 본래 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석이라도 산중에 묻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광부가 땅속에서 흙속에 묻힌 보석을 캐내고 또 열심히 다듬어야만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참선하고 열불하고 정진하는 등 부단한 방법으로 탐·진·치는 광산에 묻혀 있는 본래의 불성을 캐내야 합니다. 이

본래 부처를 캐내는 피나는 노력이 모두 수행입니다. 그러하여 일단 본래 부처 모습을 캐내어 놓으면,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걸림이 없어져 그 몸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이 부서지고 아귀에 들어가도 아귀가 만족하고 축생에 들어가도 지혜가 생깁니다. 지옥이니 축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탐진치 삼독의 끈끈한 그림자에 가려진 세계이므로, 마음하나 밝히면 광명이 비치어 어두운 온갖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내 본래 마음하나 밝힐 때 이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는 이치를 알았다면 이제 모두 그 마음 밝히는 작업에 힘써야 하겠지요.

내가 한참 참선 수행할 당시만 해도 먹을 것이 귀할 때라 매일 도토리를 따다가 밤이면 그것을 모두 까서 도토리밥을 해먹었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도토리밥을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 도토리를 따러 다니다가 몸이 올라서

로서 가장 왕성하게 참선정진과 열불수행을 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행하던 그 시절이 또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시절로 기억됩니다.

한국불교는 전통적으로 구산선문으로부터 태고보우선사 나옹스님 등 선종이 중심이 되어 배려왔지요. 그러나 선으로만 도를 깨친 이는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각 사찰에서 스님들이 하는 모든 의식은 아미타불극락정토(阿彌陀佛極樂淨土)로 경회향하는 조석열불수행이 주를 이룹니다. 선(禪)과 정(淨)이 풀이 아닌 것이 한국불교입니다.

(미타경)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주불은 아미타불 무량수불이라 하였습니까. 자기본성을 깨친 이는 자성이 미타요, 유심이 정토니라. 사바세계가 극락이지, 달리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이는 삼근대지, 돈오돈수, 최상승, 확철대오한 대선지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대자유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효스님은 ‘일체유심조’를 깨치시고

“흙속의 보석도 캐내야 빛 발하듯 탐진치 걷어내면 누구나 불성자리”

더 이상 도토리를 먹을 수도 없고, 약도 없어서 탁발을 나섰다가 서울 선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학원에서 청담스님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갈데가 없다고 하니, 나를 따라가자 하셔서 따라 나섰는데 그때 간 곳이 속리산 북천암입니다. 청담스님하고 그곳에서 쌀, 들깨, 숯, 좁쌀을 갈아서 생식을 했습니다. 매일 한 주먹씩 나눠 먹으며 수행하다 보니 어느날 해제가 되었어요. 성철스님이 청담스님을 만나러 북천암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성철스님은 남달랐습니다. 눈빛이 형형하고 아는 것이 많고 명랑쾌활하셨습니다. 같이 살기도 했는데 그때 내 나이 22세, 성철스님은 32세이었고, 청담스님은 42세로 꼭 10년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술천품(述千品) ③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不知成敗事 부지성패사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見微於所忌 견미지소기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세상 일의 성패를 알지 못하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기미를 살펴
피할 바를 아는 것만 같지 못하다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不見甘露道 불견감로도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服行甘露味 복행감로미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감로의 길을 만나지 못하면
단 하루를 살지라도 부처님 법을
제대로 맛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不知大道義 부지대도의

나중에 고통만 무성케 만드네

凶人行處 흉인행학
沈淪數載 침절삭삭
快欲爲人 쾌욕위인
罪報自然 죄보자연

흉악한 사람 모진 짓을 행해
자주 자주 되풀이 하면서도
유쾌하게 그것을 행하니
죄 값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吉人行處 길인행덕
相應積福 상응적복
甘心爲之 감심위지
福應自然 복응자연

좋은 사람은 덕을 행하되
덕이 덕을 낳으며 날로 쌓여서
이를 달가워하는 마음이면
복덕은 절로 절로 응해오는 것

妖孽兒福 요일견복
其惡未熟 其惡未熟
至其惡熟 至其惡熟
至其惡熟 至其惡熟

악한 사람도 악의 열매 익기 전엔
복 만나지만 악이 익으면 죄값 받네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學惟佛法要 학유법요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대도의 참맛을 알지 못하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불법의 요체를
잘 가려 배움만 같지 못하다

自受罪處 자수죄학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나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그러나 그 악이 익어지면
스스로 혹독한 죄값을 받는다

禍祥兒福 정상견화
其善未熟 其善未熟
至其善熟 至其善熟
必受其福 必受其福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그러나 그 선이 익어지면
반드시 그 복을 받게된다

擊人得擊 격인득격
行惡得惡 행인득인
罵人得罵 매인득매
施怒得怒 시노득노

남을 치면 나도 얻어맞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들고
남을 매도하면 나도 매도 당하며
남에게 성을 내면 나도 노여움을 받는다

악행품(惡行品) ①

見善不從 견선부종
反隨惡心 반수악심
求福不正 구복부정
反樂邪淫 반락사음

옳은 일을 보고도 뒤쫓지 않고
도리어 나쁜 마음을 따라가며
복을 구할 뿐 바르지 않고
도리어 사된 음욕을 즐겨워하네

凡人爲惡 범인위악
不能自覺 불능자각
愚癡快意 우치쾌의
命後壽毒 영후유훁

무릇 사람들이 악을 일삼고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흔쾌히 여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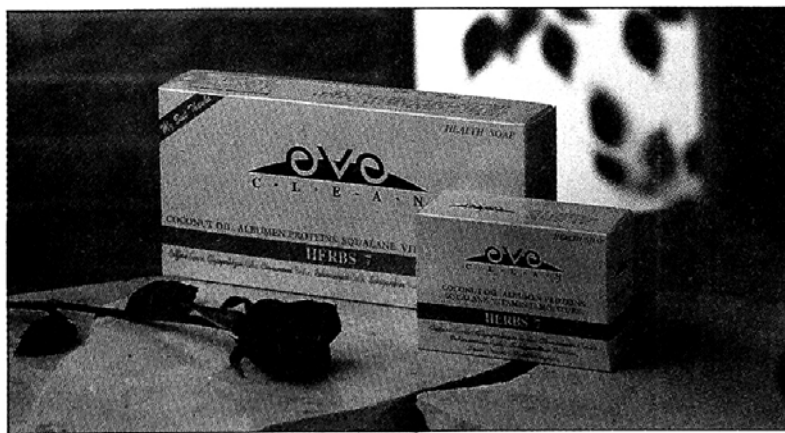
龍眼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치킨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미!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 (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항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인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항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속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인 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보호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항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